

아모스서 통일성 논쟁에 대한 재고:

아모스의 지진을 중심으로¹⁾

방기민*

1. 들어가며: 아모스와 통일성 논쟁

보통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9세기까지 예언 활동했던 소위 구전 예언자(예: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와 다르게 아모스를 비롯한 8세기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을 일차적으로 구전으로 선포²⁾하는 한편 글로도 보존³⁾했으며,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8세기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사료가 된다.

*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기독교학전공 강사, 구약학

- 1) 본 연구의 일부는 필자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함을 밝힌다: K.-M. Bang, “A Missing Key to Understanding Psalm 46: Revisiting the Chaoskampf,” *CBW* 37 (2017), 68-89; 방기민, “자중해 배경에서 히브리 성서 읽기,” 『자중해지역연구』 21:1 (2019), 77-101.
- 2) 아모스와 여러 예언자의 글을 구연의 측면에서 연구한 주요 단행본으로 다음을 참조: J. Mathews, *Prophets as Performer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and Israel's Prophets*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20); W. Doan and T. Giles, *Prophets, Performance, and Power: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London: T&T Clark, 2005).
- 3) 본 논문에서 사용한 아모스서의 비평본은 오랫동안 사용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BHS)가 아니라 2010년 새롭게 출간된 Biblia Hebraica Quinta(BHQ)이다. 기본적으로 레닌그라드사본(Codex Leningradensis)을 대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훨씬 방대한 비평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만하며, 본 연구에서는 논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최신 연구와 비평 장치를 바탕으로 논의하려고 노력한다. A. Gelston, *Biblia Hebraica Quinta: The Twelve Minor Prophets*. Fascicle 13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본문과 비평 장치는 37-56쪽, 소 마소라(Masorah Parva) 해설은 21*-23*쪽에서, 대마소라(Masorah Magna) 해설은 39*-41*쪽에서, 비평 장치 해설은 78*-88*쪽에서 찾을 수 있어서 유용하다.

아모스서가 8세기 중엽 선포된 아모스의 예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학자들이 동의하더라도, 아모스서가 최종적으로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된 과정과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고 이론가들 사이의 복잡한 논쟁이 있었다.⁴⁾ 가장 대표적으로 로버트 쿠틀(Robert B. Coote)는 아모스서의 편집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며, 아모스 예언자가 구두로 선포한 임박한 파멸과 재앙에 관한 신탁을 말하는 A 단계, 이후 아모스의 말들이 7세기 유다 사람들에 의해 재확정화되고 글로 작성된 단계를 일컫는 B 단계, 마지막으로 열두 예언서의 한 부분에 포함된 현재 위치에서의 아모스서를 일컫는 C 단계가 그것이다.⁵⁾ 쿠틀의 견해보다 더 복잡한 편집사적 단계 구분 역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스 발터 볼프(Hans Walter Wolff)의 헤르메네이아 주석은 본문의 형성이 6단계(a. The Words of Amos from Tekoa, b. the Literary Fixation of the Cycles, c. The Old School of Amos, d. The Bethel-Exposition of the Josianic Age, e. The Deuteronomistic Redaction, f. The Postexilic Eschatology of Salvation)를 거친다는 가설을 제안했다.⁶⁾ 아모스서 본문 형성 및 편집사와 관련된 여러 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4) 최근 한국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대표적으로 언급해볼 수 있겠다. 김영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1-2장의 열방심판 본문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 29-51. 박지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 아모스 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3 (2022), 102-128; 배화숙, “이스라엘의 삼중 관계: 이스라엘과 아훼, 열방, 예언자(암 2:6-3:8),” 『선교와신학』 59 (2023), 265-296; 배화숙, “아모스의 열방 심판 말씀 (1:3-2:5) - 이웃 민족의 ‘서너 가지 죄’의 성격과 유다 심판 말씀의 기능,” 『장신논단』 54:5 (2022), 9-34;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 아모스 5장 1-17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7:3 (2021), 155-180; 최종원, “아모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3:4 (2017), 119-149.

5) R. B. Coote,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원제는 *Amos among the Prophets: Composition and Theology* (Philadelphia, PA: Fortress, 1981).

6) H. W. Wolff, *Joel and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the Prophets Joel and Amos*, trans. W. Janzen, S. D. McBride, Jr., & C. A. Muenchow (Philadelphia, PA: Fortress, 1977); 원제는 *Dodekapropheten 2 Joel und Amos*,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IX/2 (Neukirchen-Vluyn: Neukirchner Verlag, 1975).

두 사람의 견해만 요약 제시했지만, 아모스서의 본문 형성과 관련한 복잡한 이론들이 제시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8세기 중엽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예언자 아모스의 시대보다 후대에 일어난 일들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아모스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아람/다메섹, 가사, 페니키아/두로, 에돔/보스라, 암몬/랍바, 모압/그리옷, 유다/예루살렘)의 왕궁에 불을 보내실 것이라는 구절들(암 1:4, 7, 10, 12, 14, 2:2, 5)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궁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구절들(암 3:15, 6:11)은 웬지 앗시리아에 의한 군사적 정복으로 발생한 현상과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암 9:11) 역시 겉보기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처럼 들린다. 이런 가정에 동의하면 아모스서의 몇몇 부분은 8세기보다 후대에 집필되어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모스서의 최종 형성 연대는 6세기 예루살렘 파괴 이후가 된다. 만약 왕궁들이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8세기보다 후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여러 학자가 해왔던 아모스서가 ‘수백 년에 걸친 복잡한 전승과 편집과정을 거친 산물’이라는 추론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아모스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복잡한 전승사적, 편집사적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아모스서에 나타난 현상 대부분이 8세기 중엽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면 — 특히 표제어인 아모스 1장 1절에서 암시하듯이 지진과 관련하여 일어난 현상들일 수 있다면 — 아모스서 본문의 더욱 많은 부분이 아모스 동시대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아모스서의 통일성 논쟁을 재고하며 지진을 중심으로 아모스서 전체를 새롭게 읽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아모스의 지진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특히 아모스의 지진 규모와 진앙의 위치, 지진의 연대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

로 연구한 오스틴-프란츠-프로스트(Austin-Franz-Frost)의 연구⁷⁾를 소개한다. 이어서 아모스의 지진의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듯한 시편 46편의 본문을 간략하게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아모스의 예언 각 부분에 나타난 내용을 지진과 관련해서 새롭게 살펴본다.

2. 아모스의 지진에 관한 연구

아모스 1장 1절에 언급되는 지진은 많은 아모스 연구자에게 단순히 연대기적인 표지로 여겨지곤 했다. 여러 예언서가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연대기적 표지(예: 사 1:1; 렘 1:2-3; 겔 1:1-3; 호 1:1; 미 1:1; 습 1:1; 학 1:1, 2:1, 10, 20; 숙 1:1, 7:1 등)를 남기기 때문에 아모스 1장 1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어온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 땅은 튀르키예 남동쪽으로부터 에티오피아/케냐까지 이어지는 단층 지대(the Great Rift valley)의 일부인 요단 협곡을 가지고 있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이따금 발생하

7) S. A. Austin, G. W. Franz, and E. G. Frost, "Amos's Earthquake: An Extraordinary Middle East Seismic Event of 750 B.C.," *IGR* 42:7 (2000), 657-71. 이 외에도 아모스의 지진과 관련한 여러 연구물을 참조하였다. N. Ambraseys, "Historical Earthquakes in Jerusalem - A Methodological Discussion," *JS* 9:3 (2005), 329-40; S. Bunimovitz and Z. Lederman, "Close Yet Apart: Diverse Cultural Dynamics at Iron Age Beth-Shemesh and Lachish,"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Israel in the Late Bronze Age, Iron Age, and Persian Period in Honor of David Ussishki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33-53; K. Ogden, "The Earthquake Motif in the Book of Amos," *Goldene Äpfel in Silbernen Schal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2), 69-80; R. N. Roberts, "Is Anyone Home? Amos 6.8-11 in Light of Post-Earthquake Housing," *Methods, Theories, Imagination: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eds. David J. Chalcraft, Frauke Uhlenbruch, and Rebecca S. Watson, *The Bible in the Modern World* 60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14), 147-57; M. Zohar, A. Salamon, and R. Rubin, "Reappraised List of Historical Earthquakes That Affected Israel and Its Close Surroundings," *JS* 20:3 (2016): 971-85; M. Zohar, A. Salamon, and R. Rubin, "Earthquake Damage History in Israel and Its Close Surrounding - Evaluation of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Tectonophysics* 696-697 (2017), 1-13.

는 지역이고 지진 발생이 비교적 일상적인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학자들은 지진 언급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일어난 지진을 여러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결코 평범한 지진이 아니었다. 이 지진은 기원전 1천년대 레반트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했던 지진으로 여겨지며 이스라엘과 인접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모스 1장 1절의 서문과 본문을 지진을 중심으로 새롭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경과 고대 사료를 먼저 살펴보고, 지질학자들의 연구와 시편 46편 속에 암시된 지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성경과 고대 사료 속 아모스 지진에 관한 언급

구약성서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아모스 지진과 관련된 언급은 스가라 14장 5절에 언급되어 있다. 심판의 날로 묘사되는 야훼의 날에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도망칠 것인데, 유다 왕 웃시야 시절에 일어난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과 같이 도망쳐야 할 것이라는 기록이다. 여기서 회자하는 아모스의 지진이 기원전 750년쯤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가라 14장의 연대를 가장 이른 가능한 시기(520-518년)로 보더라도 최소 230년 전의 지진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스가라 9-14장의 후대 연대설⁸⁾을 따라 헬레니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석하면 스가라 14장 5절은 최소 400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진에 대한 기억이 수백 년 뒤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회자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지진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볼 수 있겠다.

이 지진에 대한 성서 밖의 기록이 충분하진 않지만, 기원후 1세기의

8) 예를 들면 스가라 9장 13절의 헬라에 대한 언급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한 레반트 점령 이후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Jewish Antiquities*)가 일부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유대고대사 9권 10장은 유다 왕 웃시아의 행적을 보고하면서 업적(9.216-9.221)과 함께 웃시아의 타락과 남은 행적(9.222-9.227)을 기록하고 있다.⁹⁾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웃시아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이를 막아섰고, 왕이 노발대발하는 시점에 커다란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다. 지진의 결과로 성전 성소에 틈이 생겼으며, 그 틈 사이로 햇별이 왕의 얼굴에 비추면서 그 결과로 왕이 악성 피부병¹⁰⁾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9.225). 비록 이 기록은 웃시아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린 곳이 발이라고 보도하는 성서 본문과 불일치하고, 또 햇별이 비춤에 따라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진과 웃시아의 질병(혹은 부상?) 간에 모종의 상관관계를 암시하는 구절로 이해된다. 동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이 언급하는 지진으로 발생한 성전의 틈은 아모스 9장 11절에 언급된 ‘틈’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는 기록처럼 보인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보여주는 웃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만든 질병과 지진 사이 모종의 관계는 아모스의 지진을 기원전 760년경의 사건이 아닌 웃시아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하게 된 기원전 750년대 전후로 연대추정 하기 위한 문헌 근거 중 하나가 되겠다.

2.2. 아모스 지진에 관한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연구

9)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에 관한 최신 번역 및 비평본은 다음을 참고: C. T. Begg and P. Spilsbury, *Flavius Josephus, Translation and Commentary, Volume 5: Judean Antiquities Books 8-10* (Leiden: Brill, 2005), 180-183.

10)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의 대부분 번역은 나병(leprosy)으로 번역하며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 성서 본문의 개역개정판 역시 나병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한센병의 전파는 훨씬 후대이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이 주로 채택하는 번역어인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참조: 유윤중, “šāra‘at, lepra, leprosy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206-230.

20세기 말까지 학자 대부분은 고고학자들의 추정에 따라 아모스의 지진이 기원전 760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연대분석 해왔다. 아하로니(Y. Aharoni)는 하술 발굴에서 철기시대에 속하는 지층 VI에서 발견된 모든 지표로부터 심각한 지진으로 인한 파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아하로니는 하술에서 발견된 파괴 흔적을 남 유다 왕 웃시아가 다스리던 시기 중 기원전 760년경(추정오차 30-40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 아하로니 등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연대추정은 주로 파괴된 잔해의 지층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지층의 층위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연대추정은 앞뒤로 30-40년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아모스서 주석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며 아모스서 후속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760년경으로 지진의 연대추정 하는 다른 까닭 중 하나는 아마도 아모스의 비판적 예언의 배경이 되는 예로보암 2세의 영토확장이 기원전 760년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이후 시점에서 아모스의 예언 활동과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후 2,000년에 세 명의 지질학자(S. A. Austin, G. W. Franz and E. G. Frost)는 아모스 지진에 대한 지질학적, 고고학적, 성서 또는 문헌 속 증거들¹²⁾을 종합하여 더욱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동료 지질학자들의 후속 연구에도 다수 인용되며 인정받고 있기에 관련 연구자들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들의 논문은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방법론과 결과물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이다. 첫째, 세 명의 지질학자는 여러 지역의 파괴

11)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A. 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99. 하술 발굴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 Y. Yadin, *Hazor, The Rediscovery of a Great Citadel of the Bible* (New York: Random House, 1975); Y. Yadin et al., *Hazor II: An Account of the Second Season of Excavations, 1956* (Jerusalem: Magnes, 1960), 24-26, 36-37; I. Finkelstein, "Hazor and the North in the Iron Age: A Low Chronology Perspective," *BASOR* 314 (1999), 55-70.

12) 성서와 성서 외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이들은 구약학자인 프리드먼(D. N. Freedman)과 웰치(A. Welch), 고대 이스라엘 고고학자 디버(W. G. Dever) 등의 도움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흔적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지진의 진앙(epicenter) 위치를 추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쪽 도시들(Hazor, Deir 'Alla, Gezer, Samaria, Bethel)과 남쪽 도시들(Jerusalem, Tel 'Erany, Lachish, Tell Judeideh, Tel Sheva, 'En Haseva)의 발굴과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파괴 규모를 추정 및 비교했다. 결과적으로 세 연구지는 남쪽 도시들의 피해 규모보다 북쪽 도시들의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진앙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분석 결과를 사용하였다.¹³⁾ 둘째, 이들은 여러 지진 전문가들의 선행연구와 더욱 방대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여러 지역의 지층 비교,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계산식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진의 연대와 관련하여 기원전 760년정보보다는 750년경이 더 적절하다고 유추하였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러 지진으로 인한 파괴 흔적의 탄소 동위원소에 따른 분석과 그 예상 오차, 고대 문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활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파괴 흔적 및 지층에 남겨진 흔적들을 바탕으로 지진의 리히터 규모는 최소 7.8에서 최대 8.2에 해당하는 강진이 일어난 것으로 계산되었다.¹⁴⁾ 진앙의 위치에 대해서도 중요한 추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모스의 지진은 하솔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아마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쪽 혹은 레바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앙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스라엘 남부에서 최소 175 킬로미터, 최대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예측된다.¹⁵⁾

13) Austin, Franz, and Frost, "Amos's Earthquake," 658-661.

14) 오스틴-프란츠-프로스트 이전에 제시된 아모스의 지진 규모는 리히터 규모 8.2를 제시한 A. Ben-Menahem, "Earthquake Catalog for the Middle East(92 B.C.-1980 A.D.)." *BGTJ* 21 (1979), 245-310과 7.3을 제시하는 A. Ben-Menahem, "Four Thousand Years of Seismicity along the Dead Sea Rift," *JGR* 96 (1991), 195-216을 참조할 수 있겠다. M. Zohar, A. Salamon, & R. Rubin, "Reappraised List of Historical Earthquakes that Affected Israel and its Close Surroundings," *JS* 20 (2016), 971-985에서 재인용.

15) Austin, Franz, and Frost, "Amos's Earthquake," 664-667.

2.3. 성서 본문 속 아모스 지진에 관한 암시(시편 46편)

성서 본문 중에는 시편 46편이 지진으로 인한 재난 상황과 유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편은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연(1-3절 / MT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발견되는 도움의 손길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한다(1-2절 상반절). 첫 번째 연의 뒤따르는 절-2절 하반절-3절(MT 3-4절)-에서는 구체적인 재난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황, 바닷물이 흉용하며 뛰노는 상황, 바닷물이 넘치고 산이 요동치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것은 큰 지진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고, 쓰나미 해일이 해안가를 휩쓸어가는 등의 재난 상황을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의 두 번째 연(4-6절/MT 5-7절)에서 대조 기법을 활용하여 다른 민족들과 왕국들은 흔들려 큰 피해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는 도성 시온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4-5절/MT 5-6절). 앞서 언급한 오스틴-프란츠-프로스트의 연구에서 진앙의 위치를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당시 남 왕국 유다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북 왕국 이스라엘, 아람, 페니키아 등)은 진앙 가까이에 있는 까닭에 지진(흔들림)으로 큰 피해를 당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진앙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른다.

시편 46편은 ‘땅이 녹았다’(6절 하반절/MT 7b절)라는 표현을 통해 지진으로 인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땅의 액상화(Liquefaction)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어서 흥미롭다.¹⁶⁾ 액상화는 지하수가 많은 모래 퇴적층 지역에서

16) 최근의 연구에서 암잘락(N. Amzallag)은 땅이 녹았다는 표현을 화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N. Amzallag, *Psalms 29: A Canaanite Hymn to YHWH in the Psalter* (Leuven: Peeters, 2021), 43-44. 그러나 암잘락을 비롯하여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땅이 녹았다는 표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지진으로 인한 땅의 액상화에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진 지질학자인 살라몬(A. Salamon) 등의 전문가를 통해 액상화 위험 지도를 제작한 바 있다. Geological Survey

지진으로 인해 모래와 물이 섞이면서 토양이 액체처럼 변하는 현상이다. 이스라엘에서 지진으로 인한 땅의 액상화는 주로 해변 지대에서 발생했으며 블레셋이나 두로를 중심으로 하는 페니키아 등지에서 특히 심각했을 것이지만, 중앙산지의 비교적 튼튼한 지반 위에 있는 남 왕국 유다는 액상화로 인한 피해도 적었을 것이다.

한편 8절(MT 9절)에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든 아훼의 행적(“שְׁמוֹת בְּאֶרֶץ” מִפְּעֻלֹת יְהוָה אֲשֶׁר־שָׁם”)을 보라고 기록한다. 지진 중에 땅이 발산한 혼돈과 파괴적인 힘을 제압하신 하나님의 행적에 관한 찬양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황무지에 가까운 광경을 보여주는 장소는 바로 네게브(남방) 사막 지역이다. 진앙으로부터 예루살렘보다 훨씬 떨어져 가장 적은 피해를 보았을 곳이 네게브 사막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의 파괴적 힘을 제압하고 발가벗기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네게브의 지진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고대인들이 생각했을 수 있다.

시편 46편이 정말로 아모스의 지진과 관련된 시라면 5절(MT 6절)은 지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5절 하반절(“יְשִׁירָהּ אֱלֹהִים לְפָנֹת בִּקְרָ””)을 개역개정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번역하고, NRSV는 “God will help it when the morning dawns”라고 번역한다. 개역개정이나 NRSV 등의 성경 번역에서 접두형 동사를 미래의 의미로 번역했지만, 최근의 히브리어 동사 연구는 접두형 동사를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로 번역할 수 있는 때도 있음을 말한다.¹⁷⁾ 따라서 이 구절은 실제로 새벽 혹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셨다는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5절(MT 6절)을 바탕으로 추정한다면 하나님께서

of Israel, “Liquefaction Potential Map” (<https://www.gov.il/en/departments/general/potential-for-liquefaction-maps>, 게시일: 2020년 5월 2일)

17)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67-87; 유윤중, “엘 아마르나 텍스트에 비추어 본 북서 셈어의 동사 체계 - 안손 레이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4 (2003), 173-195.

계시는 도성 시온이 첫 번째 연에서 묘사된 자연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시기는 아침 혹은 이른 아침이 시작되는 새벽임이 분명하다. 물론 이 시점(새벽)과 요세푸스 유대고대사가 말하는 지진의 시점(햇볕이 비치는 낮)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첫 강진(새벽)이 일어나고 이에 준하는 규모의 후속 지진(낮)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아모스 지진이 역사에 끼친 영향

앞서 제시된 아모스의 지진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난점이 해소되며 설명될 수 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난점이 있었다면 여로보암 2세의 41년에 걸친 비교적 성공적인 재위(기원전 786-746년 혹은 기원전 793-753년) 이후에 그 아들 스가라가 불과 6개월 통치한 뒤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교체된 의외성을 언급할 수 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왕으로서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어낸 왕으로 보인다. 보통 긴 시간 성공적인 통치를 이룬 왕의 재임기 동안에는 왕권이 안정되어 정당한 명분을 가진 후계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왕권을 불안정하게 만든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연대 재구성에 따라 여로보암이 죽은 해는 대략 746년 혹은 대략 753년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아모스의 지진이 760년경에 일어났다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사이에 개연성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오스틴-프란츠-프로스트의 견해에 따라 아모스의 지진이 750년 전후에 일어났다면 여로보암이 지진으로 급작스럽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모스 3장 15절에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쳐서 상아로 만든 궁궐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밤에 여로보암 2세가 지는 중에 궁궐이 무너졌다면, 그래서 만약

왕이 급작스럽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북 왕국 이스라엘의 정치가 갑작스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디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기원전 745-727년)는 보통 신앗시리아 제국의 제2의 창립자(the second founder)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수많은 군사적 업적을 이룬 왕으로 평가된다.¹⁸⁾ 이전의 왕들은 레반트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할 때마다 반앗시리아 동맹국들의 결속으로 인해 레반트 점령에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 전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앗시리아는 디글랏빌레셀 3세 이전까지 정체기를 겪기도 하고, 특히 영토를 확장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우라르투 왕국과의 거듭된 전쟁(기원전 781-778, 776, 774년)으로 영토를 소실했다.¹⁹⁾ 그런데 디글랏빌레셀 3세가 즉위한 745년으로부터 앗시리아는 달라졌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집권하자마자 곧 레반트 지역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며 앗시리아의 영토를 크게 넓힌 것이다.

디글랏빌레셀 3세 이전까지의 앗시리아 왕들이 영토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까닭은 주변에 비슷한 국력을 가진 다른 나라 및 반앗시리아 동맹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최근의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최대 리히터 규모 7.8)로 새벽 4시에 일어난 지진이 지역에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줬던 것처럼, 아모스의 지진으로 반 앗시리아 동맹국가 다수의 요새가 파괴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

18) 디글랏빌레셀 3세에 대한 최근 연구는 다음을 참조: J. Elayi, *Tiglath-pileser III, Founder of the Assyrian Empire* (Atlanta, GA: SBL Press, 2022)

19) 8세기 초부터 앗시리아는 쇠퇴기에 있었다. 디글랏빌레셀 3세 직전에 왕이었던 살만에셀 4세(기원전 782-773년 재위), 앗수르단 3세(기원전 772-755년 재위), 앗수르니라리 5세(754-745년)에 이르는 약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앗시리아의 침체기였다. 할로(William W. Hallo)는 이 시기를 영양가 없는 40년(forty lean years)으로 부르기도 한다. 앗시리아 역사의 대략적인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고: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B.C. 2,000년경-B.C. 539년)』, 류광현, 김성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228; M. V. D. Microop,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Oxford: Blackwell, 2007). 예로보암 2세 때의 영토확장은 기본적으로 앗시리아의 일시적 쇠퇴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로 건물의 잔해더미에 깔려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군사시설에 피해를 보았다면 레반트의 여러 나라들과 앗시리아 사이의 군사적 균형 관계가 갑작스럽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다글랏빌레셀 3세의 군사적 성과는 단순히 이전의 앗시리아 왕들에 비해 유능해서라고 보기보다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앗시리아의 중심지는 진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력 부대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반 앗시리아 동맹국들은 큰 피해를 당하였고 요새들이 다 복구가 되기 전에 앗시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정복을 시작했다면 이후 앗시리아의 연이은 승리는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셈이다. 남 왕국 유다가 북 왕국 이스라엘보다 적은 영토를 가지고도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어쩌면 진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적거나 가벼운 피해를 본 덕분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아모스의 지진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셈이다.

3. 아모스의 지진을 중심으로 아모스서 새롭게 읽기

3.1. 아모스 1장 1절

דְּבַרֵּי עָמוּס אֲשֶׁר־הָיָה בְּנִקְרִים מִתְּקוּעַ אֲשֶׁר חָזָה עַל־יִשְׂרָאֵל בְּיָמֵי עֲזִיָּה
מֶלֶךְ־יְהוּדָה וּבְיָמֵי יִרְבֵּעָם בֶּן־יֹאָשׁ מֶלֶךְ יִשְׂרָאֵל שְׁנָתַיִם לִפְנֵי הָרָעַשׁ

지진 전 2년, 유다 왕 웃시아의 통치기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이스라엘에 대하여²⁰⁾ 본, 트코아 출신²¹⁾ 목자들 중에 있었던, 아모스의 말

20) 전치사 על의 주요 의미 가운데 ‘-에 대항하여’라는 뜻이 있고 아모스서의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거슬러’라는 번역도 고려해볼 만하겠지만, 일부 미래 회복에 관한 말씀도 아모스서에 나오기 때문에 중립적인 “-에 대한”의 의미를 선택하였다. 전치사 ע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배희숙, “전치사 ‘알’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24 (2009), 54-71.

21) BHS보다 훨씬 방대한 비평 장치를 제공하는 BHQ에서는 구그릭어(OG/LXX) 다수

아모스 1장 2절 이후 대부분의 말씀은 지진 전에 선포되었을 수 있으나, 1장 1절은 분명하게 지진 이후에 덧붙여진 말씀이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아모스 주석은 아모스 1장 1절에 나타난 지진 언급을 단순히 연대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지진 전 이 년에 있었던 아모스의 예언이라는 언급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것은 뒤따르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처음 선포된 지 2년 만에 결국 지진이 일어나 예언의 대부분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암시이다.

예언서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흥미로운 견해 중 하나는 로싱(B. R. Rossing)과 란다우(Y. Landau)가 재조명하고 있는 ‘예언은 확정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결합된 시의적절한 경고다’라는 견해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가 가진 목적은 미래의 확정된 고통이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뉘그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²²⁾ 시의적절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난이 일어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1장 1절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언급은 아모스의 예언이 지진의 영향권 안에 포함될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 속에 언급된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경고로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본문과 불가타, 시리아, 타르굼 등이 지지하는 אֲמַר (트코아로부터) 외에도 소수 구그리어 (OG/LXX) 사본이 보여주는 $\epsilon\nu \Theta\epsilon\kappa\omicron\upsilon\epsilon$ (트코아 안에)라는 이문을 제시한다. BHQ 열두 예언자의 편집자인 겔스턴(Gelston)은 아마도 이러한 이문이 생기게 된 까닭이 그리스어 내부의 본문 훼손(εκ에서 εν으로) 혹은 히브리어 맴을 베트로 잘못 읽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다수 본문의 독법이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수 사본이든 소수 사본 증거든 “트코아 출신”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22) B. R. Rossing, *The Rapture Exposed: the Message of Hope in the Book of Revelation* (New York: Basic Books, 2004), 86-90; Y. Landau, “The President and the Bible: What Do the Prophets Say to Our Time?,” *CC* 12 (1983), 474-475.

3.2. 아모스 1장 2절

וַיֹּאמֶר
יְהוָה מִצִּיּוֹן יִשְׁאָג וּמִירוּשָׁלַם יִתֵּן קוֹלוֹ
וְאָבְלוּ נְאֻת הָרָעִים וַיִּבֶשׂ רֹאשׁ הַכְּרֹמָל

그가²³⁾ 말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소리를 내신다.²⁴⁾

그러자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²⁵⁾

갈멜²⁶⁾ 꼭대기가 마른다.”

-
- 23) 한글 성경 중에 새번역이나 공동번역개정판은 וַיֹּאמֶר(바-요마르/그가 말했다)의 주어를 아모스로 특정하고 있다. Lexham Discourse Hebrew Bible의 담화분석은 주어를 야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개역개정, LSF, Luther 1984, NRSVue 등)은 주어를 특정하지 않고 삼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그로 번역한다. 이것은 꽤 많은 해결책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개정판, Lexham Discourse Hebrew Bible과 달리 주어를 특정하지 않고 ‘그’로 번역하기로 한다.
- 24) 익명의 심사자의 견해에 따르면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소리를 내신다”(1:2)는 구절은 12소예언서의 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소라 본문에서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가 배치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모스 1장 2절의 부분이 바로 앞에 나오는 요엘 3장 16절(MT 4장 16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요엘에서 흐름상 연결되는 책으로 봐야 함을 암시하는 구절이라는 중요한 지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12예언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읽으려는 최근의 여러 연구 흐름과 잘 맞는다. 이 의견을 따를 때 아모스 1장 2절의 현상을 지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요엘서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 그러나 심사자의 이 견해에도 여러 난점들이 있다. 첫째, 12예언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읽는 연구에 MT 최종본문의 형성과 신학을 밝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LXX와 MT 사이에는 배열순서의 차이가 있다. 보다 오래된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는 LXX에서는 요엘서가 아모스서 앞에 위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엘서와 아모스서가 이어지는 책으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아모스서는 대개 가장 오래된 문서예언서 중 한 권으로 꼽히는 반면, 요엘서는 연대표시가 없어서 연대추정이 어려운데 비교적 다수 학자들은 포로후기와 같이 늦은 시대 연대설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도 요엘서에 언급된 일식(아마도 개기일식) 언급을 바탕으로 요엘의 후대연대설에 동의한다. NASA에서 만든 지난 5,000년간의 개기일식 데이터 중 기원전 8세기부터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 시점까지 사례를 살펴보면 남부 레반트 지역을 통과한 개기일식의 사례는 기원전 401년 1월 18일, 기원전 349년 10월 6일, 기원전 335년 7월 4일 정도에 불과하며 포로기 이후에 집중되어

1장 2절의 주요 특징은 야훼께서 소리를 내셨을 때 자연에 변화가 생긴 상황을 보여준다. 목자들이 목축하는 데 사용하던 풀밭과 갈멜산 꼭대기 혹은 빼어난 포도원이 시든 모습을 통해 자연 재난을 겪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큰 소리가 났다는 점과 아모스의 지진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서 볼 때, 지진으로 산꼭대기가 무너지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목축업을 하던 풀밭 지역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장면을 재구성해볼 수 있겠다.

아모스 1장 2절과 3장 8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야훼를 용맹한 사자에 빗대어 묘사한다는 점이다. 최근 동물학과 관련지어 성서를 해석하며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성서학자 중에 발견되는데,²⁷⁾ 야훼 하나님을 동물에 빗대어 묘사하는 것은 동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앗시리아 연대표와 관련한 표준연대를 제공하는 763년 혹은 762년 6월 15일의 개기일식은 남부 아나톨리아 및 앗시리아를 통과한 개기일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남부 레반트 지역에는 태양의 최대 80%이하 면적을 가리는 부분일식으로 보였을 것이다. 참조: NASA Eclipse Website (<https://eclipse.gsfc.nasa.gov/eclipse.html>). 만약 아모스서가 요엘서보다 연대적으로 앞선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아모스서와 요엘서에서 같은 구절을 발견할 경우, 요엘서가 아모스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보다 아모스서가 요엘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 25) 레닌그라드 사본과 5QAmos는 אַבִּל II 어근을 따라 ‘마른대’, ‘시들다’로 번역될 수 있는 독법을 보여준다. 70인 역은 και ἐπένθησαν (카이 에펜테산/그들이 통곡했다)로 번역함으로써 어근을 אַבִּל II 어근이 아니라 אָבֵל I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람어 타르굼은 황폐해졌다는 뜻으로 번역하여 레닌그라드 사본 및 5QAmos의 독법과 비슷하지만, 목자들의 풀밭 대신 왕들의 처소들로 의역한다.
- 26) 정관사가 사용되어 갈멜산과 같은 지명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갈멜(카르멜)은 포도원을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만약 지명인 갈멜산이 아니라 포도원을 뜻하는 경우 הָרֶאשׁ הַכְּרִמָּל은 포도원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을 의미하겠다.
- 27) 예: K. Stone, *Reading the Hebrew Bible with Animal Stud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8); A. Walker-Jones, *Psalms Book 2: an Earth Bible Commentary: “As a Doe Groans”* (London: T&T Clark, 2020); 이종록, “니느웨 상상력 - (비인간) 동물 신학 정립을 위한 구약성서 연구,” 『신학사상』 175 (2016), 7-43.

3.3. 아모스 1장 3절 - 아모스 2장 16절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본문은 다메섹(아람, 3-5절), 가사(블레셋, 6-8절), 두로(페니키아, 9-10절), 데만(에돔, 11-12절), 랍바(암몬, 13-15절), 그리옷(모압, 2장 1-3절), 예루살렘(유다, 4-5절), 이스라엘(6-16절)에 대한 심판 예언과 주요 이유를 담고 있다. 배회숙이 최근의 논문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듯이,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및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신탁이 일정한 도식을 따라 선포된다.²⁸⁾ 각 단락은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하며,²⁹⁾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 ‘궁궐들’(מִקְדָּשִׁים)³⁰⁾을 불태울 것이라는 요소들이 반복된다.

아모스의 편집사를 제시했던 대표적인 학자 볼프는 이 단락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궁궐을 태우는 불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종종 사용되던 적 도시를 점령하던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살만에셀 3세가 아맛의 군주 거주지를 정복하던 사실을 기술할 때 ‘내가 그의 궁궐에 불을 던졌다’³¹⁾고 보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³²⁾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하는 방식이 왕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궁궐에 불을 지르는 것은 보편적인 전쟁 종결 방식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전제하면 볼프 등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해 내리는 벌에 관한 본문(암

28) 배회숙, “아모스의 열방 심판 말씀(1:3-2:5),” 11.

29) 다만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하지만, 실제 죄의 목록은 더 적은 숫자의 죄를 언급하기도 한다는 난점이 있다. 배회숙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숫자상의 불일치는 주로 통시적으로 설명되곤 한다. 원래 모든 양식적 구조를 잘 갖춘 다섯 나라에 대한 신탁이었지만, 나중에 세 나라에 대한 신탁이 추가되어 현재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윗글, 12-13.

30) 우리말에서 궁궐로 번역된 מִקְדָּשִׁים(아르메노트/망루들, 성채들, 궁궐들)은 사전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제시된다. BDB에서 מִקְדָּשִׁים은 보통 망루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왕의 거주와 관련된 용례로 사용되기도 한다. HALOT에서는 מִקְדָּשִׁים을 외래어 מִקְדָּשׁ에 상응하는 토착어 단어로 보기도 한다. 망루이든, 성채이든, 궁궐이든 야간에도 불을 피워 경비하는 중요 보안 구역임은 틀림없다.

31) Monolith Inscription 2.89. Translations: A. L. Oppenheim, *ANET*3, 278; *AOT*2, 340; Wolff, 155에서 재인용.

32) Wolff, *Joel and Amos*, 154-155.

1:3-2:13)이 아모스의 예언보다 후대에 발생한 앗시리아의 정복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왕궁에 불이나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파괴의 경우에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인가? 그것은 아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왕 혹은 정치지도자의 신변 보호는 중요한 문제인데, 낮에 친위대 혹은 경호대를 배치하여 왕을 암살로부터 보호하겠지만, 밤에도 몰래 숨어드는 암살자를 막기 위해 왕의 침실 주변에 불을 피워 밝게 비추며 경비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왕궁에서 불을 피우고 경비했을 시점인 밤이나 이른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 햇불 등이 넘어지게 되고 따라서 왕궁마다 크고 작은 불이 났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 나라만이 아니라 레반트 지역의 여러 나라의 왕궁 혹은 망루마다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설명 가능하다. 왕궁에 해당하는 단어(*miṣṣā*)를 왕궁이 아니라 망루라고 번역할 때도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하여 햇불을 피워두고 전방을 살폈을 것을 가정한다면 왕궁과 마찬가지로 지진 때문에 햇불이 넘어져 불이 날 수 있다.³³⁾

3.4. 아모스 3장

3장의 기본 구조는 1-2절에서 심판 예언한 뒤에, 3-8절에서는 아무런 징조가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과관계와 징조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자기 종 예언자들에게 먼저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7-8절).

33) 한편 독특하게도 여러나라를 향한 심판 예언 단락(1:3-2:16) 속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예언 부분(2:6-16)에서는 궁궐에 불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 아마도 아모스서에서 가장 긴 이스라엘 심판 예언은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궁궐에 잠시 화재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3:14-15; 6:11)에 이르기 때문일 것이다. 지진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발생한 화재 사례는 벨엘에서 일어난 것으로 5장 6절에 암시된다.

3장 1-8절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림버그(J. Limburg)가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반대를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자기 변호 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⁴⁾ 그런데 앞선 1장 1절의 해설에서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예언자의 활동은 확정된 미래의 재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경고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기술되는 심판을 곧 내리실 계획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예언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9-15절에서는 사마리아에 내릴 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11절의 경우 후대의 군사 정복에 의한 심판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3장 13-15절은 지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판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다. 만약 15절이 아모스에 의해 예견된 그대로 실현되었거나, 지진 이후에 실제 상황에 맞게 15절이 다듬어진 것이라면, 여로보암 2세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 상아궁, 큰 궁궐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궁전에 살고 있던 여로보암 2세의 생명이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을 수 있겠다. 보통 한 왕이 비교적 성공적인 통치를 끝낸 뒤에는 왕권이 안정되어 당분간 후대까지 안정된 왕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 아들이 불과 6개월 통치하고 반란이 일어나 예후 왕조가 끝을 맞이한 미스터리는 여로보암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3.5. 아모스 4-6장

아모스 4-6장은 주로 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4장 1-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북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6-13절에서 주로 자연을 통한 재앙이 예고된다. 농사가

34)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 - 미가』 (현대성서주석;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59-160.

잘 되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6절),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마실 물이 부족한 것(7-8절), 각종 해충과 전염병 등으로 생기는 곤란(9-10절)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12-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

5장 1절-17절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8절의 찬양을 중심으로 정교한 대칭 구조가 발견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상원은 8-9절의 찬양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로 집중되는 짜임새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고발(7, 10절)과 ‘죽음-삶’(1-6절), ‘삶-죽음’(14-18절)이 교차하는 구조로 둘러싸고 있다.³⁵⁾ 죽음과 삶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6장은 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이 방탕하고 안일한 생활을 묘사하며(암 6:1-7),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파괴되며 타격을 입을 것을 말한다(암 6:8-11). 재앙을 예고하는 부분 중에서 6장 11절의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라는 구절은 큰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5장 3절이나 6장 9-10절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앞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같이 새벽에 강진이 일어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있을 것이다. 밤에 일어난 강진의 참혹성과 인명피해 규모는 2022년 같은 지진대에서 비슷한 규모(7.8 리히터 규모)로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현대의 콘크리트를 활용한 건축물도 심각하게 파괴되며 큰 인명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시 아모스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상상하기 어렵다.

3.6. 아모스 7장-9장 10절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가 본 환상을 통하여 다섯 가지 재앙이

35)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155-180(특히 160쪽을 보라).

예고된다. 첫 번째 환상에서 예고된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환상에서 예고된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킬 것이라는 재앙은 예언자 아모스가 “주 여호와여 청하건데 사하소서/그치소서 아굽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암 7:2b, 5)라고 중보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철회하셨다고 기술된다(암 7:3, 6).

철회되었다는 보도가 없으므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셋째 환상에서 예고된 다림줄³⁶⁾과 관련한 재앙(산당들이 황폐해지며, 성소들이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이 피해를 보는 것) 보도 장면에서는 독특한 사건이 따라온다. 벵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세 번째 환상 보도 중간에 개입한 것이다.³⁷⁾ 아마샤는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말을 전달하면서 모함하는데, 7-10절에 언급된 아모스의 말과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전달한 아모스의 말에 몇몇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흥미롭다.

아모스의 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8절 하반절-9절)
아마샤가 옮긴 아모스의 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11절)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의 말을 전달할 때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왜곡, 변조한 것처럼 보인다. 먼저 다림줄과 관련한 말을 빼고 전달하였다. 다림줄은 건물의 수평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건물이 기울어

36) 다림줄 환상과 관련한 부분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림줄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여기에서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난해하다.

자세한 논의는 유윤종이 잘 정리해주고 있다. 유윤종,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학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0:1 (2016), 123-146 참고

37) 앞선 장면들의 흐름을 고려할 때, 만약 아마샤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 때와 마찬가지로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세 번째 재앙 예고도 철회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거나 무너지는 상황을 암시할 수 있다.³⁸⁾ 결국 곧 다가올 재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고 왕에게 보고한 셈이다. 둘째,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고 이야기했던 아모스의 말을 변조하여,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자극적으로 바꾸어 전달하였다.³⁹⁾ 마지막으로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변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왜곡하였다.

아마사의 방해로 아모스가 벧엘에서 쫓겨난 이후, 아마도 중보할 사람이 없어서, 심판 신탁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진다.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8:2)이라고 하며 연이어 심각한 심판을 언급한다. 그중에 8장 8절과 9장 5-6절은 지진으로 인한 땅의 액상화와 쓰나미 해일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절이다. 지진으로 인한 토양의 액상화로 “땅이 강의 넘침 같이 솟아오르며”(8:8), 땅이 녹고, 강의 넘침 같이 솟아 오르는(9:5) 일이 발생한 것이다. 9장 6절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는 말은 시편 46편에서도 그림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쓰나미 해일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7. 아모스 9장 11절-15절

아모스 9장 마지막 부분은 아모스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다. 11절과 12절은 레반트에서 비교적 남쪽에 위치한

38) 물론 유윤중은 건축에서 납으로 만든 다림줄을 사용한 것이 훨씬 후대였다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여러 가지 다른 견해도 소개한다. 유윤중은 다림줄에 해당하는 단어의 가장 확실한 뜻은 ‘주석뿔’이기 때문에 주석담과 같이 연약한 상태의 담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유윤중,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탁,” 131-133.

39)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집은 왕조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왕궁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낫다. 은유적 표현인 ‘하나님의 칼’에 의해 여로보암의 왕궁 ‘건물’이 파괴됨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사가 옮긴 말은 건물의 파괴가 아닌 여로보암의 ‘죽음’에 강조점이 있다.

예루살렘(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관련하여)과 예돔처럼 비교적 지진 피해가 적었던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기에 그나마 지진과 관련하여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14절과 15절의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8세기 예언자 아모스가 직접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본문이 된다. 아마도 후대에 후기(postscript)와 같은 형식으로 덧붙여진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9.225)가 언급하는 지진으로 성전 벽에 생긴 틈(crack)은 아모스 9장 11절과 관련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일부 있겠다. 북이스라엘만큼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도 지진으로 벽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는 말은 지진 후에 복구공사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4. 나가며

아모스의 지진을 중심으로 아모스서를 통일성 있는 책으로 혹은 보다 적은 편집단계를 거친 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약학계에 여러 가지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모스 1장 1절의 표제가 단순히 연대기적 표시가 아니라 깊은 신학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아모스서에서 예언된 여러 가지 재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동시에 몇몇 신학적인 문제 역시 던져준다. 아모스 1장 1절이 말하는 바가 결국 아모스서 나머지 부분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민족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강진을 통해 심판받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몇몇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언급하며 설교했을 때 여러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2004년 12월 26일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발생한 인도양 지진해일(쓰나미)로 수많은 사람

이 목숨을 잃었을 때 서울 한 대형교회의 목사는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을 담은 설교를 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서 받은 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우리나라 포항에서 지진과 땅의 액상화가 일어났을 때도 비슷한 해석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지진으로 인한 심판이었다는 주장의 측면에서 아모스 1장 1절의 메시지와 몇몇 목회자들의 발언에 유사점이 있으므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정론적, 신학적, 실천적 고민을 던진다.⁴⁰⁾

아모스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자연재난을 연결하여 이해하거나 설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일부 자연재난은 아모스의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재난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작업은 매우 큰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아모스서의 지진과 관련한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부분이다.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상황은 분명히 인간들의 회개와 변화된 생활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모스의 지진이 아모스가 회개를 촉구한지 2년이 지나서 발생한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의 예언자들인 생태신학자들이 외치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조만간 아모스의 지진과 유사하거나 어쩌면 더욱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큰 재난을 앞두고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던 아모스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40) 물론 아모스의 예언은 위에 언급된 목회자들의 발언과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들이 있다. 첫째, 아모스의 예언은 지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일부 한국 목회자들의 발언은 지진 후에 발화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아모스의 예언은 시의적절한 경고로써, 당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진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일부 한국 목회자들의 발언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 사람들을 비꼬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어>

아모스의 지진, 통일성, 시편 46편, 액상화, 예언, 아모스서

<Keywords>

Amos' Earthquake, Unity, Psalm 46, Liquefaction, Prophecy, the Book of Amos

* 접수일 2023년 8월 18일, 수정일 2023년 10월 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0월 4일

참고문헌

- 김영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1-2장의 열방심판 본문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3 (2012), 29-51.
-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B.C. 539년)』, 류광현, 김성천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로버트 B. 쿠틀,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박지은,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 아모스 9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8:3 (2022), 102-128.
- 방기민, “자중해 배경에서 히브리 성서 읽기,” 『자중해지역연구』 21:1 (2019), 77-101.
- 배희숙, “이스라엘의 삼중 관계: 이스라엘과 야훼, 열방, 예언자(암 2:6-3:8),” 『선교와신학』 59 (2023), 265-296.
- 배희숙, “아모스의 열방 심판 말씀(1:3-2:5) - 이웃 민족의 ‘서너 가지 죄’의 성격과 유다 심판 말씀의 기능,” 『장신논단』 54:5 (2022), 9-34.
- 배희숙, “전치사 ‘알’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24 (2009), 54-71.
- 유윤종, “언어유희와 아모스의 심판신탁 -아모스 6:13-14; 7:7-9; 8:1-3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0:1 (2016), 123-146.
- 유윤종, “šāra‘at, lepra, leprosy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206-230.
- 유윤종, “엘 아파르나 텍스트에 비추어 본 북서 셈어의 동사 체계 - 안손 레이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4 (2003), 173-195.
- 이상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모스’에 대한 고찰 - 아모스 5장 1-17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7:3 (2021), 155-180.
- 이종록, “니느웨 상상력 - (비인간) 동물 신학 정립을 위한 구약성서 연구,” 『신학사상』 175 (2016), 7-43.
-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 - 미가』 (현대성서주석;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최명덕, “접두형 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2005), 67-87.
- 최종원, “아모스 8-9장에 나타난 희망의 신탁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3:4 (2017), 119-149.

- Aharoni, Yohanan,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Anson F. Raine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 Ambraseys, N. "Historical Earthquakes in Jerusalem – A Methodological Discussion." *Journal of Seismology* 9:3 (2005), 329-40.
- Amzallag, Nissim, *Psalms 29: A Canaanite Hymn to YHWH in the Psalter* (Leuven: Peeters, 2021).
- Austin, Steven A., Gordon W. Franz, and Eric G. Frost. "Amos's Earthquake: An Extraordinary Middle East Seismic Event of 750 B.C." *International Geology Review* 42:7 (2000), 657-71.
- Bang, Ki-Min, "A Missing Key to Understanding Psalm 46: Revisiting the Chaoskampf,"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7 (2017), 68-89.
- Begg, Christopher T., and Paul Spilsbury, *Flavius Josephus, Translation and Commentary, Volume 5: Judean Antiquities Books 8-10* (Leiden: Brill, 2005).
- Bunimovitz, Shlomo, and Zvi Lederman, "Close Yet Apart: Diverse Cultural Dynamics at Iron Age Beth-Shemesh and Lachish,"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Israel in the Late Bronze Age, Iron Age, and Persian Period in Honor of David Ussishki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1), 33-53.
- De Microop, Marc Van,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Oxford: Blackwell, 2007).
- Doan, William, and Terry Giles. *Prophets, Performance, and Power: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London: T & T Clark, 2005).
- Elayi, Josette, *Tiglath-pileser III, Founder of the Assyrian Empire* (Atlanta, GA: SBL Press, 2022).
- Finkelstein, Israel, "Hazor and the North in the Iron Age: A Low Chronology Perspectiv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14 (1999), 55-70.
- Gelston, Anthony, *Biblia Hebraica Quinta: The Twelve Minor Prophets, Fascicle 13*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0).

- Landau, Yehezkel, "The President and the Bible: What Do the Prophets Say to Our Time?," *Christianity and the Crisis* 12 (1983), 474-75.
- Mathews, Jeanette, *Prophets as Performer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and Israel's Prophets*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20).
- Ogden, Kelly, "The Earthquake Motif in the Book of Amos," *Goldene Äpfel in Silbernen Schale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2), 69-80.
- Roberts, Ryan N. "Is Anyone Home? Amos 6.8-11 in Light of Post-Earthquake Housing." *Methods, Theories, Imagination: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The Bible in the Modern World 60, eds. David J. Chalcrafft, Frauke Uhlenbruch, and Rebecca S. Watson (Sheffield: Sheffield Phoenix, 2014), 147-57.
- Rossing, Barbara R. *The Rapture Exposed: the Message of Hope in the Book of Revelation* (New York: Basic Books, 2004).
- Stone, Ken, *Reading the Hebrew Bible with Animal Stud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8).
- Walker-Jones, Arthur, *Psalms Book 2: an Earth Bible Commentary: "As a Doe Groans"* (London: T & T Clark, 2020).
- Wolff, Hans Walter, *Joel and Amos: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the Prophets Joel and Amos*, trans. Waldemar Janzen, S. Dean McBride, Jr., and Charles A. Muenchow (Philadelphia, PA: Fortress, 1977).
- Yadin, Yigal, *Hazor, The Rediscovery of a Great citadel of the Bible* (New York: Random House, 1975).
- Yadin, Yigal, et al., *Hazor II: An Account of the Second Season of Excavations, 1956* (Jerusalem: Magnes, 1960).
- Zohar, Motti, Amos Salamon, and Rehav Rubin. "Earthquake Damage History in Israel and Its Close Surrounding - Evaluation of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Tectonophysics* 696-697 (2017), 1-13.
- _____, "Reappraised List of Historical Earthquakes That Affected Israel and Its Close Surroundings." *Journal of Seismology* 20:3 (2016), 971-85.

<초록>

아모스서 통일성 논쟁에 대한 재고:

아모스의 지진을 중심으로

방기민

(강남대학교)

이 논문의 목적은 아모스서의 통일성 문제를 재고찰하는데 있다. 학자들은 아모스서가 한 번에 쓰여진 책이라기 보다는 최소 3단계에서 최대 6단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 까닭은 아모스서의 예언이 앗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 및 재건과 같은 후대의 사건들에 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원전 750년경에 일어난 규모 7.8-8.2로 추정되는 지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모스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심판이 아모스의 지진으로 성취되었을 수 있음을 논의하고, 아모스서 대부분이 아모스에 의해 직접 선포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노력한다.

아모스 지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1)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연구, (2) 스가라와 요세푸스, (3) 시편 46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모스 지진의 양상을 살핀다. 그런 다음 (4) 앞선 연구를 바탕으로 아모스서 구절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읽는다.

본 연구로 아모스서의 완전한 통일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더라도, 아모스서의 보다 많은 부분이 8세기 중엽에 집필되었을 수 있음을 독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모스서 1장 1절은 아모스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며,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 및 기후위기와 같은 자연재난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주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Abstract>

Reconsidering the Unity in the Book of Amos with References to Amos' Earthquake

Dr. Ki-Min Bang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he unity of the book of Amos. Scholars have seen that the book of Amos was written in at least three (Robert Coote) to a maximum of six stages(Hans Walter Wolff), rather than a book written at one time. The reason is that the prophecies in Amos seemed to contain allusions to later events, such as the destruction of northern kingdom (Israel) by neo-Assyria and the destruction and rebuilding of southern kingdom (Judah).

This paper suggests that most of the judgments recorded in the book of Amos could have been accomplished by the earthquake of Amo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arthquake estimated to have a magnitude of 7.8-8.2 that occurred around 750 B.C.

In order to examine the Amos earthquake, (1) studies by archaeologists and geologists, (2) Zechariah and Josephus, and (3) Psalm 46 are examined, and based on this, the aspects of the Amos earthquake are examined. Then it re-reads (4) the verses of Amos from cover to cover anew based on previous research.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omplete unity of the book of Amos by this study, readers may agree that more of the book of Amos could have been written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by Amos the prophet.

Amos 1:1 is a key verse in understanding the entire book of Amos, and more in-depth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on the theological theme of God who demands us repentance and judges through natural disasters, such as the climate crisis.

